

연중 제29주일  
(전교주일)

기도서 P. 460 B해

제1독서(이 사 53, 10-11)  
제2독서(헤 브 4, 14-16)  
복 음(마 르 10, 35-45)

#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김 불 희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④2935)



## 교회의 본질

—운영인가 파견인가?—

정 태 현 신부

사도 베드로와 바울로의 선교이래, 그리스도 교회는 이천 년의 연륜을 쌓았다. 한국 땅에 복음의 첫 씨앗이 뿌려진지도 어언 이백 년의 세월이 흘렀다.

두 경우 다 초창기의 어려움을 이기고 이제 눈부신 교회발전을 이룩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의 순수한 공동체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교회상(像)을 지니고 있지 않나 걱정스럽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 조직이나 제제나 운영이 결코 아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의 교회는 선교를 이차 삼차적인 문제로 미뤄놓고 운영에만 신경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 교회가 너무 비대해졌다 보다. 구성원들이 교회의 본질을 망각해서인가 보다.

이제 곧 내년도 교회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우리가 편성하는 예산은 선교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살림살이를 위한 것인가! 선교비나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 예산에서 얼마나 될까? 이래 가지고는 “제의방 교회”를 탈피할 수가 없다.

사도 바울로처럼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 손수 일하여 생활비를 조달해야 할 모양이다(1테살 2,9:사도 20,34). 바울로에게는 벼트 짜는 기술이라도 있었지. 손재주 없는 몸은 품이라도 팔 수밖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선교(missio: 파견)라고 한다. 선교의 핵심은 글자 그대로 끊임없는 “파견”이다. 교회는 매 미사 때마다 끊임없이 구성원들에게 외치고 있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시오!” 가시오? 세상에 불을 질러야지. 사랑의 불을 이곳 저곳에 끊임없이 질러 놓는 것이다. 예수는 오늘 복음에서 그 불을 다른 말로 표현했다. “섬기는 일”이라고.

섬기지 않고 지배하려고만 하니 세상이 온통 돈도가비(개관)이다. 예수는 자리다툼을 하는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당부했다. “제발 그러지 말라.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복음은 결코 울타리 안에서 “살림살이”를 잘 해나감으로써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세상에 나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름”으로써 진정으로 전파되는 것이다.

(중앙성당 보좌신부)



## 감 별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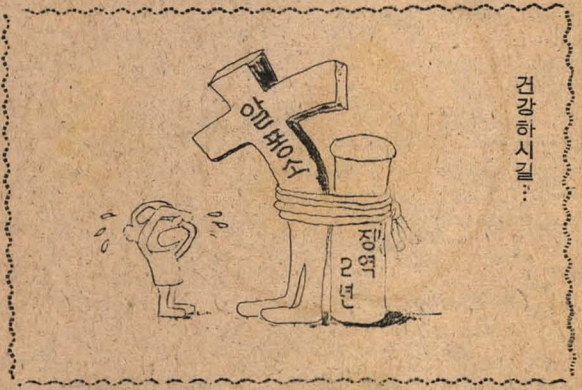
한 때 감별사(鑑別師)라는 직종이 인기가 있었다. 감별사가 하는 일은 병아리가 암컷인지 수컷인지를 가려내는 것이다. 잠깐 드러다 보고 가려내는데 그 실력이 보통을 넘어 99%정도의 정확성이 있다고 한다. 그렇게 실력이 좋은 1급 감별사는 국내에서도 그 수입이 매우 높고, 외국에 이민을 가는 기회도 많이 주어졌었다. 그래서 인기가 높았던 직종이다.

수컷은 육계(肉鷄)로 길러 식탁에 올리고, 암컷은 알 낳는 기계로 만드는 세상이 되다보니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씨암탉의 뒤뚱거리는 모습”을 찾는 사람은 시대에 뒤지는 낙오병 신세를 면할 길이 없게 되었다. 이러한 세상에는 병아리의 꼬무니를 드러다 보아 암수를 잘라내는 사람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다. 한정되어 있는 주어진 자연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려는 인간의 눈물겨운 노력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다. 그래서, 비록 밤새나 는 병아리 꼬무니에 매달리는 그들에게, 우리는 감사로 드러야 한다.

감별은 해야 된다. 무엇이 나쁘고 좋은 일인지,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감별해 내야 한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듯 “검은 것은 검다”고, “흰것은 희다”고 세상에 외쳐야 한다. 그래서 갖가지 혼란속에서 각각의 무디어져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방향각각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사명이며, 예언자의 길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요즘에는 <선별>이라는 말마디가 춤을 추고 있다. 진리가 어둠에 가려지는 이 시대에는 “가려서 따로 나눔”이나 “골라서 추려내는 선별(選別)”보다는 “(사물의 가치나 좋고 나쁨을) 감정하여 분별하는 감별(鑑別)”이 더 선행(先行) 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선별에 앞서 감별부터 하자.

## 숲 정 이 산책



건강하십시오...



# 독서의 계절에 성경을 애독합시다

김 영 구 신부

우리의 영적 생명의 활력은 우리의 생활과 사상에 자리잡는 성서의 비중에 달려있다. 나는 이것을 60년간의 체험으로 담대히 말할 수 있다. 나는 매일같이 열심히 성서를 볼때 나는 큰 축복을 받았다. 성경에 몰두하는 시간이 적을때는 그날을 잃어 버리는 것 같았다. 나는 믿음을 간구하며 언젠가는 믿음이 확실해져서 나를 번개처럼 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믿음은 충실하지 않았다. 나는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었다. "그러므로 들어야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더욱 열심히 성서를 읽었더니 나의 신앙은 점점 자랐다.

### □ 성서에 대한 명언(名言)

나는 성서를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는다. 구세주의 모든 선한 것은 이 성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된다.

나는 현대의 위인 95명중 그중 87명은 성서를 믿는 사람들이다. 성서는 그 기원(起源)이 특별하여 다른것과는 비교가 안된다.

하느님과 성서를 모르고 바른 정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서는 단순한 책이 아니다. 반대하는 모든 것을 정복하는 능력을 가진 생명체다

나의 사상과 글에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렸을때부터 성서를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부모님 덕분이다. 우리가 성서의 가르치는 원리로 산다면 우리나라는 번영할 것이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성서의 교훈과 권위를 무시한다면 갑자기 큰 재앙이 내려와 우리를 깊은 심연에 빠뜨릴지 모른다.

성서는 인간의 언어에서 나온 가장 진실한 것으로 이것을 통하여 하느님을 향하여 열렬히 창문처럼 모든 사람은 영적 고요를 느낄 수 있고, 멀리 있어 오랫동안 잊혀진 가정을 볼 수 있다. 내가 쓴 것에 칭찬할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어렸을때 어머니가 매일 성서를 읽어주시고 나에게 그것을 외우게 한 덕분이다. 이 위대한 교전은 아직도 견제하고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이 거룩한 말씀은 더욱 빛을 내고 있다.

성서는 가난하며 눌린자의 대원장이다. 인간은 그것을 없앨 수는 없다.

은 인류가 바라는 인간의 발전은 더 큰 성서의 영향력에 달려있다.

성서는 지금까지 인쇄된 다른 모든 서적을 합친것과 같은 가치가 있다.

성서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성서를 읽은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노예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아무리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성서는 나에게 항상 빛과 힘을 주었다. 성서 읽는 그 자체가 교육이다. 나는 성서를 무척 즐거워하며, 사람이 어려서부터 성서를 읽기 시작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욱 유능한 국민이 되고 존경받는 사회인이 되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성서는 인간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된다. 이익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범죄하는 것이다. 신약성서는 이 세상에서 전후후두한 가장 좋은 책이다.

인간의 모든 발전은 성서에 나타난 진리를 더욱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에 불과하다.

인간의 정신문화가 발전하고, 자연과학이 엄청나게 진보되고, 인간의 마음이 원하는대로 된다 할지라도 복음

# 할머니의 묵주

—다함께 기도 합시다.

김 정 남

몇일전에 성바오로서원에 들러서 묵주를 샀다. 내게는 묵주알이 하나 없었고 몇개는 깨져버린 낡은 묵주가 하나 있다. 너무나 오래되고 낡아서 쓸모가 없을 정도로 여겨지지만, 나는 그 묵주를 그렇게 대할 수가 없다. 매우 뜻깊은 묵주이기 때문에 그렇다. 수십년전에 할머니께서 쓰시다가 내 손에 넘어갔기 때문에 나는 그 묵주를 아주 소중하고 정성스럽게 다루고 있다.

할머니는 매우 신심이 뜨거운 분이셨다. 나는 그 할머니께서 "천주의 성모여 이제와 우리 죽음을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으소서"하시며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그려보곤 한다. 그래서 그 낡은 묵주를 그렇게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바쁘신 하루 하루의 생활에서도 틈을 내어 기도하시던 할머니처럼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한층 머릿속에 떠오르곤 한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박해와 멸시속에서도 쉬지않고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묵주를 들자. 지금 이 세상은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가? 날이 갈수록 험악한 사건들이 아무렇게도 얹게 벌어진다. 우리들의 마음 또한 얼마나 날로 포악해지고 있는가? 배웠다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매끄럽게 빠져 나가며 지능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가? 학생들도, 청년들도, 정치인들도, 아니 신앙을 가졌다는 우리네까지도 얼마나 자주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가? 용서를 빌자. 우리 모두의 마음이 성모님의 치맛자락처럼 부드러운 지도로 뜨겁게 기도하자. 지금은 바로 로사리오 성월이다.

나도 이제 새로 산 내 묵주에 할머니처럼 아름답고 거룩한 추억을 남기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술정이 성당)

을 통하여 비치는 그리스도교의 숭고한 도덕적 문화를 넘어설 수는 없다.

동방에서 태어나 동양의 웃을 입은 성서는 다정한 걸음으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각국을 순방한다. 성서는 인간의 마음과 대화하기 위하여 수백개의 언어를 배웠다. 어린이들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지식인들은 생활의 교훈으로 받아들인다. 악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은 그 경고에 떨지만, 마음에 상처를 받고 참회하는 사람은 사랑스런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다. 사랑, 우정, 동정, 헌신, 추억, 희망의 아름답고 화려한 웃을 입는다. 이 물을 얻는 사람은 아무도 가난하거나 고독하지 않다. 대지(大地)가 어두움에 덮였을때 순례자는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와도 손에 성서를 들고 있을 때 문에 두터워 하지 않는다. 그는 친구들에게 "안녕, 다시 만납시다. 라고" 말하고 성서에 의지하여 어두움을 지나 밝은 곳으로 나온다



순수자연식품

**CHLORELLA-ONE**

크로레라一元

이서구(토마스 아퀴나스)

전주시 덕진동 덕진공원 앞 3-9519  
전주시 교사동 시민치과 앞 3-7898

청정 크로레라



# 교회의 오늘과 내일을 위한 회의

—참가 대상자의 빠짐없는 참석 바람

교구의 금년도 사목 결과 평가와 신년도 사목 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가 22(월)일 오전 10시부터 카톨릭센터에서 개최된다. 한 해를 돌아다 보고 새해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모임이다. 참가 대상자(제위 신부님, 사도회장님, 교구내 각 수도회 대표, 교구단위 액션단체장, 양 학교장)은 빠짐없이 참석해서 보다 알찬 80년을 기약하는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이후 23일부터 24일까지에는 각 지구별로 교구 예산을 심의한다. 해당 지구의 신부님과 사도회 상임위원은 바쁜 모든 일들을 제쳐놓고 참가해서 새해 살림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겠다.

교구 예산확정 회의는 29일(월)에 있다. 교구 참사회와 평의회 신부님, 수녀 연합회 대표,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평협) 대표가 참석한다.

이러한 제반 회의에 참가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나와서 머리를 마주 대고 마음을 열어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는 일이야말로 사도직의 기본이 아닐 수 없다. 참석해야 할 사람들은 꼭 참석하고, 모든 신자들은 회의의 성공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다. 이 일이 바로 하느님안에 일치의 첫걸음이다.

## 신앙대학 강좌 안내

전국 평협이 주최하는 제 4차 신앙대학 강좌가 26일(금) 부터 28일(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성서와 현대와 우리>라는 주제로 열리는 강좌에는 「성서와 현대의 복음선교」(윤공희 대주교), 「복음과 교회의 사회참여」(성공회 이찬환 대주교), 「성서와 현대와 우리」(경감룡 주교), 「성서의 가난한 사람들」을 서강대학의 서인석 신부(구약)와 정양모 신부(신약)등이 16시간으로 나누어 강의한다. 수강비는 1인당 2만원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교회사제들은 22일까지 평협 사무국(전화 ④2935)으로 접수하면 된다. 회의에 참석하시는 신부님 편에 접수해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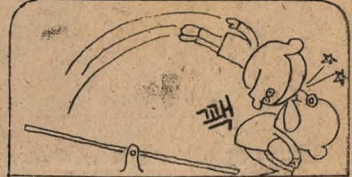
## 방송 안내

교구 교육 홍보국에서 어려움을 무릎쓰고 방송을 계속 해오고 있다. 많은 관심과 청취, 이웃 형제들에게의 안내가 아쉽다. (서해방송)

- 사색의 오솔길...매일 밤 0시 15분부터 25분까지(중전은 11시 40분)
-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제 3부 크래식 시간에 방송됨.
- 생활종교...매일 마지막 주일 아침 7시 40분부터(김환철 신부 담당)

정의 평화를 위한 성금 계속 접수합니다.  
군인들에게 보내는 가락지 묵주 성금도 계속 접수합니다.

## 요심이 (325) 김병오



## (축) 전주

### 성심 유치원 운동회

때 : 1979. 10. 23 오전 10시  
장소 : 전동 천주교회 운동장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남성의 멋을 드립니다

## 베드루네 집

(아카데미 백화점 A5호)

안 철 만(베드루)

\*교우님들의 아낌에 감사드립니다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 MCGREGOR



## 맥그리거

삼선물산전주매리점  
※성인·아동용의류  
전주시 중앙동 3가  
삼화약국 옆  
전화 ④ 4451번  
유 룰리가나

★ 양심을 찾자 ★

현 대 활 라 특 약 점  
카메라 대여 학교앨범 각종 사진 출사

## 중앙 사진관

이리시 창인동 중앙시장 사거리  
이리여교 입구 전화 7901  
한 원 규 (야코버)

□ 정화 미용학원 학생모집 □

## 윤 경 미 장 원

(신부화장 및 드레스)

이리시 창인동 구 역전 앞

최 윤 경 (유리안나)

전 화 : ② 8653

□ 픽업차로 신속배달, 가정방문으로  
결정, 교우님들 자주 찾아주세요

## 신진프로판가스상사

대표 최 안드레아

전주시 진북동 천번도로

전화 ⑤ 5448 · ③ 1071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전년도 평가 및 신년도 계획수립 확대회의...22일(월) 오전 10시, 가톨릭센터 회의실  
참석대상-제위원신부님, 사도회장님, 각 수도원 대표 1명(단 성체회 본원대표 2명), 각 단제장, 양학교장
  2. 프란치스코 형제회 3회 전주지구 피정...21일 오전 9시~오후 5시, 노송동 성당에서  
※ 회비-500원, 식사 지참. 공아영 전 지도신부 특강 있음
  3. 교리교사 종교 심포지움(본당 공소 합동)...11월 10일(토)~11일(일), 가톨릭센터에서  
많은 교사들의 참석을 바랍니다(공문 참조)
  4. 여자 전도모임...21일(일) 오후 1시 30분, 성심여고 강당에서
  5. 지성인을 위한 사상강좌...25일(목) 오후 7시30분 가톨릭센터, 강사-박도식 신부, 주제-실존주의의 의미
  6. 제2지구 예산심의(지구 확대회의)...23(화) 오전 10시, 팔마천주교회에서  
참석대상-신부님, 사도회장, 재경부장
  7. 중·고등학생 교리경시대회 시상(10월 28일(일) 오후 2시, 사목국에서 장학금 전달)  
단체종합우승-화산본당, (중) 1위-화산 김구영, 2위-술정이 김기영, 전동 오인숙, 4위-합월 권석류,  
5위-노송동 이옥, (고) 1위-합월 김영근, 2위-화산 김하영, 3위-술정이 정석, 4위-임실 황소영,  
5위-중앙 조영덕 ※ 28일 오후 2시까지 해당학생은 교구청 사목국으로 나오세요
- 정의평화를 위한 성금...창인동 5만원, 합월 남궁영호 1만원, 순창 2만 1천원, 한들신자 1만원
  - 노인들을 위한 목주성금...해성학교 익명 교사 1만원, 순창 이대테사 3천원, 술정이 익명 1천원, 노송동 박메리수 1만원, 중앙 방지겨삼희 1만 5천원(지난주 5천원을 바로 잡음), 김라파엘 5천원 서한동 익명 2천원
  - 수재민을 위한 성금...서학동(46,750원), 원평(15,000원), 창인동(50,000원)
  - 왕수해 신부님 부친 왕세웅(이나시오)씨 76세로 18일 선종. 기도바랍니다.

(중앙)

전화 ③3651 주임 신부 서용복  
3874 보좌 신부 오수태  
사도 회장 이희석

1. 성모회 : 21일(일) 공식미사후
  2. 전교회에 가입합니다(500원)
  3. 삼지회 : 24일(수) 오후 6시30분  
장소: 합문권 형제대
  4. 주일학교에 관심을 가지시다 토요일 오후3시
  5. 제11차 대화의 광장: 21일(일) 오후2시 강당  
참가범위: 본당 중·고학생 ※ 제 노래책 지참
- 지난주 봉헌금: 268,586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활인구

1. 축경진: 113명
  2. 제4지구 회의  
일시: 1979.10.23일 오후 2시  
장소: 전동천주교회  
대상: 사도회장단 및 각 부장 전원
  3. 수요기도회: 24일 밤 8시(결전자 전원 참석 요망)
  4. 부녀회: 28일토
- 지난주 봉헌금: 86,025원

(노송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나금열  
사도 회장 김성록

1. 오늘은 전교주일입니다: 전교는, 우리 모든 신자의 의무입니다. 빠짐없이 전교회비를 납부합니다
  2. 제1회 신앙강좌: 오늘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아직 접수 못하신 분은, 사무실 앞, 접수처에 접수하세요
  3. 경노잔치: 노인 미사후,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 특별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많이 참석하세요
  4. 신용조합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조합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5. 교무금 납부의 날: 다음주는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교무금은 매일 분납하여 본당 운영에 협조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140,301원

(술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유아세례식: 21일 오전 9시
  2. 성모의 월례회: 21일 공식 미사후
  3. 오안회 월례회: 신협이사회 10월 28일
  4. 오늘은 전교주일 특별헌금 모금합니다
  5. 반상회 안내: 22일(월)-서신동 1구, 23일(화)-서신동 3구, 24일(수)-금암동, 25일(목)-진북 1동, 27일(토)-태평동  
반원들께서는 지정된 일정에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6. 지난주 신축기금 내주신분  
주임신부님(53만원), 유세(23만원)허씨·강원도·익명·유근창(각 13만원), 김용대(5만원), 박병배(2만 5천원), 장부형(8천원), 김귀권(33만원)
- 지난주 봉헌금: 154,62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전종제  
사도 회장 유석

1. 예비자교리: 금주부터 주일 오전 11시, 수요일 오후 3시  
전교의 달을 맞아 많은 예비자 인도바람
  2. 본당 살림에 관심을 갖고 협조합니다  
신입한 교무금 조속히 완납합니다
  3. 11월 2일은 위령의 날입니다
  4. 80년도 계획 및 예산서 사도회 각부  
11월 11일까지 제출바람(학생·주일학교 포함)
  5. 80년도 사도회 임원선거: 28일 공식 미사후 많은 협조 바랍니다
  6. 성탄대비 성가연습: 매주(금) 오전 11시  
학생-토요일 오후 5시(2층 회의실)
- 지난주 봉헌금: 24,880원 교무금: 116,90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병연  
보좌 신부 김기수  
사도 회장 유석

1. 피미씨음: 오후 2시 전동성당
  2. 사도회 피정: 장소(광주 피정의 집) 회비 1,000원  
많은 임원 동반회장 신심단체장 참석 바랍니다
  3. 성화회 임원 개편  
신임원: 이영태·이세열·김남수  
☆ 앞으로 1년간 본당 발전과 회원들의 화목, 단합 밝은 전진을 위해 수고하시겠습니다
  4. 성심 유치원 운동회: 10월 23일
  5. 저녁 미사시간 변경: 7시 30분에서 → 7시로
  6. 본당 여직원 채용: ○명(상업학교 졸업자 환영)  
희망자는 이력서 1통, 졸업 증명서 1통(본당 신자에 한함)
  6. 정구장 회원을 모집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296,780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중섭  
보좌 신부 박성호  
사도 회장 조성호

1. 주일학교: 매주 오후 2시, 미사-3시  
빠짐없이 보내주세요
  2. 학생미사: 매주일 오전 9시, 미사후 교리
  3. 어머니 성가연습: 매주(금) 10시 30분
  4. 이번주까지: 전전 영세사진 꼭 찾아주세요
- 지난주 봉헌금: 262,200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원

1. 사도회: 금일 공식 미사후(사무실에서)  
각 구역장, 제단체장 및 사도회 임원님들 참석 바람
  2. 오늘은 전교주일입니다  
전교사역을 위해 우리 모두 전교회비를 납부 합니다  
성인-1인당 연 500원, 어린이-1인당 연 100원  
특별회원-연 2,000원
- 지난주 봉헌금: 64,750원